

축 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매미의 우렁찬 소리처럼 수행과 정진의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여름은 있
되 더위는 없는 듯합니다. 이렇듯 모든 생명들은 저마다의 모습으로 어
느뒸 결실과 수확을 나누는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미래의 시대가 곧 문화의 시대
라는 의미가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현 정부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으며, 국정운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
습니다.

선진국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한 큰 자부심으로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
고 보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기 독창성과 창의성으로 역사
와 전통을 가진 문화민족임을 세계에 알리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
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국의 상품과 디자인 개발에도 전통문화로
부터 영감을 얻어 국부 창출의 보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은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란으로 소중한 문화유
산들이 훼손되고 사라졌으며, 급기야 해외로 반출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
습니다. 특히나 불교의 문화유산은 조선 500년 동안 송유억불 정책으로
홀대받는 어려운 시대를 겪으며 힘들게 지켜왔습니다.

천태종단은 그간 전국에서 멸실 위기에 처한 불교유산을 찾아내 확보하
는 등 선대의 뜻을 소중히 하였고, 10여년의 정성으로 오늘 성대한 개관
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천태중앙박물관은 국보를 비롯한 보물 및 지방
문화재 등,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다량으로 보유한 불교박물관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자와 국민들에게 전시와 함께 문화체험 및 다양한 활동의 장
으로 이용될 것이며, 불교문화의 전승과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동안 진심어린 정진으로 천태종 중앙박물관 준공에 정성을 다하신 천
태종단 사부대중 모든 분들께 감사와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불기2557(2013) 8월 25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